

# 안동권문의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은 평창공 권옹 탐방

평창공의 공적 기리는 사업은 승조와 자궁심의 실천

평창공 권옹(추밀공파, 17세)은 안동권문의 뿌리인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은 선조이다. 그는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기 이전 1449년(세종 31)에는 개성근교에서 찰방으로 봉직하면서 당대 구봉군(九封君)이라 명성을 떨친 고조부 국제공 권보(權漉, 1262-1346)의 묘소에 5대손 격(格)과 외5대손 이계린(목은 이색의 손자)과 함께 표석을 세우기도 했다.(菊齋公實記) 뿐만 아니라 동년 9월에는 고양에 위치한 조부 정간공(靖簡公) 권희(權僖, 1319-1406)의 묘소에도 단표(短表: 작은 꽃말이나 표지)와 석물(石物)을 갖춰 수리하였다.

평창공은 강원도 평창군사(平昌郡事)를 끝으로 충주에서 거주하다 성종 때 처의 고향인 안동 풍산 하회촌에 내려와 살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동국여지승람을 읽다 “권행 묘는 부의 서쪽 본파곡리(本破谷里)에 있다”는 내용을 보고 500여 년 동안 실전되었던 시조 태사공의 묘소 위치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도 묘소의 방향만 알려진 것이지 정확한 위치를 지적해 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평창공은 이때부터 지극정성으로 찾아 나선 듯하다.

서에 류성룡의 형인 겸암 류운룡(1539-1601)은 천등산기에서 평창공이 술사(術士)와 함께 천등산

록을 두루 답사하여 마침내 지석을 발견하고 흙을 모아 봉분을 쌓고 장차 묘비를 세우려 했다(將立石)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권호문(字 章仲)에게 준 글에서는 “비록 태사의 묘역이었으나 수세기가 지난 후 폐허가 되어 답보가 우거졌으나 다행히 평창공이 지성으로 구하고 찾아서 드디어 흙을 쌓고 비석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 또 “부인이 먼저 사망하자 태사묘 아래 묘를 쓰고” 시조묘를 “수호할 계책으로 자신도 그 밑에 부장(附葬)하도록”(謙菴集 與權章仲) 유언하여 두 아들 유(裕)와 작(綽)이 그 뜻을 이어받아 단갈(短碣)을 세우고 유(裕)의 사위 이종준이 글을 베껴 썼다(撰寫)고(天燈山記) 기록하고 있다. 시조 태사공 묘소를 평창공이 찾아서 봉분을 쌓은 부분까지는 일치한다. 다만 묘비를 세운 문제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나 몇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두 아들이 세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탄옹공 권시(1604-1672)가 신도비명(高麗 三韓 三中 大匡 亞父 功臣 太師 權公 神道碑銘)에서 “지난 날 평창공이 아니었다면 누가 태사의 묘가 이곳에 있는 것을 알았으리요”라고 그 정성에 크게 감동하였듯이 오늘날 안동권문의 후손들이 해마다 춘추향제를 지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평창공의 공이라



시조 태사공 묘소(뒤), 평창군사 권옹의 묘소(앞)

할 수 있다. 다만 평창공 묘소 앞에 세워져 있는 묘비에는 부인이 흥해배씨(興海裴氏)라고 되어 있고 전 자작보에는 달성배씨(達城裴氏)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 추밀공파 족보(1983)에는 그냥 배씨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차츰 밝혀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종회에서는 평창군사 권옹의 공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집이나 유물, 사료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

향산 이만도(1842-1910)는 평창공이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향산집(별집 제4권, 추제문祝祭文) “고려 태사 권공 행

신도비 개건 고유문 본손을 대신하여 짓다 [高麗太師權公 幸 神道碑 改建告由文 代本孫作] ”에서 다음과 같이 그 정신과 공적을 기리는 시를 바쳤다.

처음 후손을 낳은 분이 / 厥初生民  
바로 우리 태사일세 / 是我太師  
금계의 성씨로서 / 以金權氏  
갈라져 고창군으로 이주했네 / 別昌郡移  
역적 전횡이 반란 일으켜 / 逆釐戕國  
재기 꿈꾸며 비분강개했으나 / 冀冀府廟  
삼공을 나란히 모셨네 / 三公并肩  
권씨로 종주를 삼았으니 / 以權主之  
대현이 확정한 논의일세 / 大賢定論  
한데 이분의 묘소가 / 惟是丘墓

공과 충정을 함께하여 / 同我表彞  
마침내 태조를 도와 / 遂助天吏  
흉악한 반역 토벌했네 / 討彼凶厥  
의로운 명성 크게 떨쳐 / 義聲大振  
권도를 함께 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 謂可與權  
토성을 하사하고 / 仍錫土姓

- 토성(土姓)을 하사하는 것에 대해 공안국(孔安國)의 (고문상서전(古文尙書傳)에는 “전자가 덕이 있는 사람을 제후로 삼을 때에는 그가 태어난 곳을 따라 성을 내린다. 이는 유덕한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 이곳의 지명을 가지고 성으로 내려 그의 덕을 드러낸다는 의미이다”라고 하였다. -

채전을 하사하였네 / 仍錫采田  
- 채전(采田)은 곧 식읍(食邑)과 채관(采官)이다. 그 땅으로 말미암아 먹기 때문에 채전이라고 한다. -

원훈의 벽상 공신으로서 / 元勳壁上  
명성이 만년토록 전해졌고 / 名聲萬年

장엄하다 안동부의 사당이며 / 翼翼府廟  
삼공을 나란히 모셨네 / 三公并肩  
권씨로 종주를 삼았으니 / 以權主之  
대현이 확정한 논의일세 / 大賢定論  
한데 이분의 묘소가 / 惟是丘墓

천등산에서 오래도록 잊혀졌네 / 天燈久昏  
효성스럽다 평창이며 / 孝哉平昌  
수염 난 분의 말을 따라 찾아보니 / 聞髯者言  
지석이 발견되고 / 乃驗其誌  
봉분이 드러났네 / 乃固其壙  
이로부터 여러 자손들 / 自是諸孫  
모두 선조를 계승하여 / 咸溯本源  
혹은 호절을 잡고 / 或秉虎節

-호절(虎節)은 주나라 제도에 산국(山國)의 사절에 사용하였다.-

혹은 용변을 맡았네 / 或任熊轡

-용변(熊轡)은 한나라 제도에 자사(刺史)가 곰 모양의 앞턱을 댈 수레에 붉은 깃발을 꽂은 것이다.-

묘갈에 남긴 글은 / 乃斯之碣  
서에게서 지은 것이고 / 匡老所撰  
비석에 새긴 글은 / 乃琢之碑  
탄옹의 문장에 미수의 전액일세 / 炭翁眉篆

승정 연간이 옛일 되어 / 崇禎往事  
지금은 쓸쓸해졌네 / 今焉蕭瑟  
뜨거운 불길 치솟고 / 烈火爇靈  
광풍이 사납던 시대에도 / 盲風厲疾  
저 작은 비석을 / 惟彼尺牒  
오려려 바꾸어 세웠거늘 / 尙已改質  
더구나 드높은 신도비를 / 矧爾漸漸

- 삼삼(漸漸)은 (시경) <삼삼지석(漸漸之石)>에 “높디높은 비석이여 드높기도 하구나. [漸漸之石 惟其高矣]” 한 것에 전거를 둔 표현이다. -

어찌 완성하지 아니하라 / 其何辛

귀부는 무너지고 / 龜趺虧陷  
비문은 이지러져 / 蜎書缺失  
남은 것을 정리하여 / 乃於餘簾  
짧은 글을 사방에 보내니 / 短簡飛出  
동방의 억조 백성들 / 環東麗億  
일제히 호응하였네 / 應響如一  
용궁에서 돌을 보내고 / 龍宮石出  
학가산에서 수레가 도착하여 / 鶴駕車泊  
갈고 닦으니 / 磨之澤之  
얼음 같은 옥돌일세 / 氷質玉魄  
문장도 구본을 따르고 / 文仍舊本  
전역도 옛 글씨 답습했네 / 篆襲已跡  
늘 아쉬웠던 것은 옛터가 / 常患故址  
한쪽 구석에 외떨어진 것이라 / 落在邊陲

이윅고 골짜기 입구에서 / 遂就洞口  
한가운데를 잡으니 / 占得中央  
묘문이 바로 마주 보고 / 隱門對直  
국면이 반듯하네 / 局面正方  
선궁은 구름에 닿고 / 璇宮覆雲  
지주는 하늘 찌르네 / 砥柱排蒼  
드높고 우뚝한 모습 / 巍然屹然  
신명과 하늘의 솜씨일세 / 神造天成  
매년 향사를 / 每年歲事  
늘 중정일에 하였는데 / 恒用中丁  
역사 완공을 고하느라 / 爲告功訖  
열흘을 물렸어라 / 一句退行  
제수는 향기롭고 / 膳炙芬芬  
제주는 맑도다 / 酒醴惟清  
공훈은 천지에 참여하고 / 功參覆載  
기개는 산천에 짝하도다 / 氣配嶽瀆  
이에 새로운 명을 돌아보고 / 乃眷新命

이에 옛 복을 펴도다 / 乃申舊福  
아, 만세토록 / 於千萬歲  
엄숙하고 거룩하리 / 肅肅穆穆

(자료출처 : 한국고전번역원db) 편집국장 권행완

## 權氏列傳 봉우 권태훈 (鳳宇 權太勳, 추밀공파 33세) 제1편

### “이 나라 백성 백두산족, 하루라도 속히 통일(重光)하게 해주소서”

민족정신 단(丹)의 부활, 그 영원한 아젠다

봉우(鳳宇) 권태훈(權太勳: 1900-1994)은 풍풍우우(風風雨雨), 도산검수(刀山劍水)의 시대를 살아왔으니, 유독 파란만장했던 일곡과 고난의 20세기에 동시대의 많은 이들과처럼 역사의 질풍노도에 서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무명야초(無名野草)의 끈질긴 인내와 대지에 우뚝 선 거목의 꿋꿋함으로 후세인들의 삶을 밝혀주는 큰 등불이 되었으니, 이는 80년대 민족의식의 부활, 민주회복의 열망, 민생경제



백두산 정상, 봉우 권태훈 선생

성장과 함께 재조명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1900년 음력 1월 20일 서울 재동(齎洞) 태생, 부친 권중면(權重冕:



여록집

저서『천부경의 비밀』

1856-1936)은 대한제국 내부(內部)의 판적국장(版籍局長)과 진도, 평산, 능주 군수등을 역임한 고종황제의 측근, 을사오적 권중현의 친동생이나 일찍이 양자로 입적했고, 을사년 이후 형제의 의를 끊고 계룡산으로 잠적했다.

모친은 경주 김씨로서 절충장군 김상호의 따님, 정신수련법을 수양하여 도학(道學)에 조예가 깊어서 봉우 6세때, 전통선도수련법의 호흡법을 가르쳐서 10세 때에는 상냥

한 수준에 이르도록 했다.

10세에 서울에서 우연히 나철(羅喆:1864-1916)선생을 만나 ‘한배검사’ 상을 배우자 곧 단군교에 입교(入敎)할 정도로 조속했다.

아버지의 충의강직(忠義剛直), 어머니의 도인수련을 물려 받은 봉우는 1912년(13세)에 민족선도계의 스승이신 김일송(金一松) 선생을 충북 영동에서 처음 만나고, 1913년(14세) 영남 유럽의 거두이신 면우(旼宇) 광종석(郭鍾錫) 선생을 찾아 보았다.

15세에 충북 영동보통학교를 졸업한 뒤로는 더 이상 공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일제 식민치하의 신교육을 거부했던 부친의 반대가 주원인이고, 다만 10대에 2차에 걸친 일본여행을 통해 새로운 서양 문명과 사상을 경험했다. 1914년(15세) 일본에서 태영도

(太靈道)의 전중수평(田中水平), 최면술의 대가 전궁형(田宮馨), 고옥철석(古屋鐵石), 일본정신계의 태두였던 원선불(原仙佛), 제자 목원귀불(木原鬼佛)을 만나 일본 정신수련계를 견학하고, 1918년(19세) 황해도 구월산에 입산, 일송 스승님의 지도하에 정신수련을 했다. 1919년(20세) 만주에 들어가 북로군정서의 김규식(金圭植:?-1929) 장군 휘하에서 무장 게릴라 투쟁을 하였고 중국, 몽골, 시베리아 등 각지로 돌아다니며 민족운동을 계속 했다.

1924년(25세) 정신수련 중 깨달은 자신의 전생을 찾아 중국 산동성 주가장(朱家莊)을 방문, 나부산(羅浮山)에서 당대 중국의 전설적인 신선 왕진인(王眞人)을 친견. 1929년(30세) 3차 중국행. 당시 외교부장 왕정정(王正廷)을 비롯 오

조추(伍朝樞), 고유균(顧維鈞), 풍옥상(馮玉祥), 녹종상(鹿鍾祥), 원극문(袁克文) 등 정치인들과 교류하고 중국의 전통정신수련제도인 <천일선(千日禪)>을 참관했다. 이때 상해 임정파의 김구(金九) 선생을 비롯한 여러 애국지사들과의 교분을 쌓았다.

해방 후 김구 주석 영도하의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여 非左非右의 민족독립노선으로 외세의존세력 타파에 앞장섰다. 1949년 김구 선생의 암살은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이후 30년 이상을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은둔의 세월을 보내다가 1984년 소설 ‘단(丹)’의 주인공으로 다시 사회의 전면에 나선다.

(다음호에 계속) 글·권오철



## 쇄 석 골 재

- 1등급골재 (13mm 19mm 25mm SMA5 SMA10 SMA13)
- 쇄석골재 (8mm 10mm 13mm 19mm 25mm)
- 혼합골재 (보조기층 40mm)
- 부순모래



## 레 미 콘

- 서중·한중 콘크리트
- 황토·유황 콘크리트
- 투수 콘크리트



## 아 스 콘

-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
- 칼라(투수) 아스콘
- 개질아스콘(SMA PMA PBS)



## 전문건설업

- 아스콘 포장공사
- 과속방지턱설치 공사
- 소파보수·덧씌우기 공사



회장 권광택

환 희 개 발 주식회사 ☎ 043) 260 - 1775  
옥산아스콘 주식회사 ☎ 043) 260 - 2205  
옥산레미콘 주식회사 ☎ 043) 260 - 2222

대표이사 / 회 장 권 광 택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